

Hebrews 7-8	히브리 7장-8장
Tape #C2299	테이프 #C2299
By Chuck Smith	척 스미스
<p>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Hebrews, the seventh chapter.</p>	<p>히브리서 7장을 모두 펴겠습니다</p>
<p>In the book of Genesis, after Abraham and Lot had parted company, there was a confederation of five kings that conquered in the area where Lot lived, and took him captive and spoiled several cities. Abraham, hearing of it, armed his servants and he went out to met these five kings in battle, and defeated them. He took from them the spoils that they had taken from the many cities that they had conquered.</p>	<p>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다음 다섯왕의 연합군들이 롯이 살던 지역을 공격하고 정복한후 롯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여러도시들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p> <p>아브라함이 이소식을 듣고 즉시 그의 종들을 그느리고 약탈해간 다섯왕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패배시키고 여러도시로부터 약탈한 물건 들을 다시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p>
<p>As Abraham was returning victoriously with the spoils from these five kings, there came out to meet him a man by the name of Melchisedec. The name means "the King of Righteousness." He was also known as "the King of Salem," which being interpreted is "the King of Peace." Nothing is told us concerning the origin of Melchisedec. We know nothing of his genealogy, nothing of his parents. We know nothing of what happened to him after his meeting with Abraham. This was 400 years before Moses and the law.</p>	<p>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다섯왕으로부터 약탈당한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 왔을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살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평화의왕"이라는 뜻입니다.</p> <p>멜기세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족보도 알지 못하고 그의 부모도 알지 못합니다.</p> <p>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된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와 율법이 오기전 약 400년전의 일입니다.</p>
<p>Melchisedec, a mysterious priest of which we know so little, is only mentioned twice in the Old Testament. The first time being there in Genesis 19, when he met Abraham. But then in Psalm 110, out of the blue the psalmist writes concerning God, that He had sworn with</p>	<p>멜기세덱, 우리가 그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이 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두곳에서 만 언급 되어 있습니다.</p> <p>첫번은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맞았을때이고 또 시편 110편에서</p>

<p>an oath that,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This one hundred tenth Psalm is a psalm concerning the Messiah. It begins, "The Lord said unto my Lord, 'Sit Thou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The Lord shall send the rod of Thy strength out of Zion: rule Thou in the midst of Thine enemies. Thy people shall be willing in the day of Thy power, in the beauties of holiness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Thou hast the dew of Thy youth. The Lord hath sworn, and will not repent,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p>	<p>시편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때에 난대없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p> <p>그는 맹세하기를 “:1 (다 윗 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p> <p>110: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중에서 다스리소서</p> <p>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p> <p>110: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p> <p>이시편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p>
<p>Now there was the Aaronic order of priesthood from the tribe of Levi. One of the requirements of being a high priest in the nation of Israel under the law was, first you had to be from the tribe of Levi, and then of the Aaronic order. Here is an order of priesthood that antedates the Levitical priesthood by 400 years. A priesthood to which Abraham, the father of the nation, gave tribute, paid tithes, and received a blessing.</p>	<p>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직을 부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중에 하나인 것입니다</p> <p>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레위 지파라야 하며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p> <p>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반차는 레위 지파가 생기기전 약400년경에 일어난 말씀입니다.</p> <p>이스라엘 나라의 국부인 아브라함이 그 대제사장에게 경배하고 소득의 십의 일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p>
<p>So the writer of the book of Hebrews, in the seventh chapter, is going to point out</p>	<p>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율법에서 설립된</p>

that this priest, Melchisedec, was of a higher order of priesthood than was the Aaronic order of priesthood established under the law. And that even after the Aaronic order had been established, a thousand years later...in fact, there is a thousand years'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ntions of Melchisedec in the Old Testament. Abraham lived about 2000 B.C. when he met Melchisedec, a thousand years later. You see, we read of it in the same Bible and it's only a few books back, but it is a thousand years back. Suddenly this comes forth, "God has sworn and will not repent, 'Thou art a priest forever, (talking of the Messiah),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not after the order of Aaron,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So that gives you a little background.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직 보다 훨씬
우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설립된 제사장직이
수립된지 약 천년후에...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명시한 두부분의 시간차가 천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 주전 2000년 경의 살았던
사람이며 그때에 멜기세덱을 맞났습니다.

그리고 천년후에 같은 성경에서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멜기세덱
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0:4 “여호와와 함께 앉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것이
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배경을 조금 명
시 하고 있습니다.

One further note before we get into the text itself. One day as Jesus was disputing with the Pharisees, they were challenging Him concerning His claims as Messiah and the Son of God. They said, "We are the sons of Abraham." Jesus said, "If you were the sons of Abraham, you would have acknowledged me, because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they looked at him and they said, "What are You trying to tell us? Abraham saw You. You are not even fifty years old." And Jesus responded, "Before Abraham was, I am." And they took up stones to kill Him" (John 8:56-59).

본문에 들어가기전 한가지 주지할
사항이 있는데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메시아 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라”고 했을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가 보고 기
뻐 하였느니라’

8: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 되었는데 아브
라함을 보았느냐?’

8:58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
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8:59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

	<p>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8:56)</p>
<p>Now this statement,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saw it.” When did Abraham see Jesus? Many Bible scholars, and myself included (but not necessarily the Bible scholar, I just love the Bible),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Melchisedec was, in reality, one of what they call the Christophanies of the Old Testament, the appearance of Jesus in the Old Testament to Abraham. And that He was actually Melchisedec who came out to meet Abraham who received tithes from him and who blessed him. It is interesting that Melchisedec gave to Abraham bread and wine, the symbols of communion, the body and blood of our Lord.</p>	<p>지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는 진술을 놓고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나? 라는 질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나자신을 포함하여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꼭 성경 학자 라기 보다 단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 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노략물의 십의 일조를 받고 축복하신 멜기세덱이 다름아닌 예수님이 라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 주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p>
<p><i>For this Melchisedec, the king of Salem, priest of the most high God (7:1),</i></p>	<p>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 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p>
<p>He said that he was the priest of El Elyown, the Most High God, when he introduced himself to Abraham.</p>	<p>그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할때에 엘 엘리온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p>
<p><i>who met Abraham as he was returning from the slaughter of the kings, and blessed him; to whom also Abraham gave a tenth part of all; first being by interpretation King of righteousness, and after that also the King of Salem, which is, the King of peace (7:1-2);</i></p>	<p>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 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7:2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 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p>

Fascinating name, King of Righteousness, King of Peace.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란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Jeremiah tells us that when the Lord comes to reign upon the earth that He will be known in that day as Jehovah-Tsidkenu, which means, “the Lord our Righteousness,” or, “the King of Righteousness.” We know that He is coming as the Prince of Peace. Both of these names incorporated in the name Melchisedec.	예레미야가 마하기를 주님께서 이땅을 통치하려 오실때에 “여호와 찌뚜게누” 곧 “여호와 의” 혹은 “의 의 왕”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ow, Melchisedec, he said was,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i>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and without genealogy,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7:3);</i>	7:3 아 비 도 없 고 어 미 도 없 고 족 보 도 없 고 시 작 한 날 도 없 고 생 명 의 끝 도 없 어 하 나 님 아 들 과 방 불 하 여 항 상 제 사 장 으 로 있 느 니 라
It doesn't tell us where he was born, when he was born. It doesn't tell us when or how he died, or that he did die. It doesn't tell us anything of his genealogy. It doesn't tell us anything of his father and mother. He appears isolated on the scene, no background, nothing of his future. Just there appearing to Abraham, blessing him, receiving tithes from him, giving him bread and wine in communion. And so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a genealogy,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그가 어디서 태어 났는지 언제 태어 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나 그의 부모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사건과 관계없이 나타나셨고 배경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아브라함 에 게 나타 나서서 축복하였고 십일조를 받았으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 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i>but made like unto the Son of God; he abides a priest continually (7:3).</i>	7:3 아 비 도 없 고 어 미 도 없 고 족 보 도 없 고 시 작 한 날 도 없 고 생 명 의 끝 도 없 어 하 나 님 아 들 과 방 불 하 여 항 상 제 사 장 으 로 있 느 니 라
God has sworn and will not repent, “Thou	” 여 호 와 는 맹 세 하 고 변 치 아 니

<p>art a priest forever.” So he abides, continually abides; the priesthood is continual, forever.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It is an order that is established which is an eternal order of priesthood. “Thou art a priest forever,” so he abides a priest continually.</p>	<p>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는 영원히 살며 제사장직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p> <p>“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영원한 반차를 따라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영원히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p>
<p><i>Now consider (7:4)</i></p>	<p>7:4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p>
<p>You remember, twice before in Hebrews we had been told to consider Jesus. “Now consider him…” Now he tells us to consider Melchisedec. And as I say, I believe that he was an appearance of Jesus in the Old Testament.</p>	<p>당신이 기억하다시피 히브리에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두번 나왔습니다. “지금 그를 생각하라…”하십니다.</p> <p>이제 그는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p> <p>내가 말해듯이 나는 그가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출현으로 믿습니다.</p>
<p><i>Now consider how great this man was, unto whom even the patriarch Abraham gave a tenth of the spoils (7:4).</i></p>	<p>7:4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p>
<p>Consider how great he must have been.</p>	<p>이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라</p>
<p>You see, Abraham was, in the mind of the Jew, the epitome. He was it. He was the beginning of the father. He was the father of those that believed. He was the prime patriarch of the people. Now consider how great this man Melchisedec was that Abraham would have given to him a tenth part of everything he had. That Abraham would have paid tithes to him, a tenth of the spoils.</p>	<p>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사람이 그들의 마음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민족의 시작자인 국부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시작인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큰자인지 생각해보십시오</p> <p>아브라함이 그에게 그의 소유물의 십의 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략한 물질 가운데 십분의 일을 드렸습니다.</p>
<p><i>And verily they that are of the sons of Levi, who receive the office of the priesthood, have a commandment to take tithes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law, that is, of their brothers, though they</i></p>	<p>7: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p>

<p><i>come out of the loins of Abraham (7:5):</i></p>	<p>령을 가졌으나</p>
<p>God had, under the law, established that the people should give a tenth part of all of their increase, that they should bring it into the temple. This was to be given to the priest. They were to pay their tithes, a tenth part of the increase. When they harvested their crops a tenth was to be brought in and given unto the Lord. The Levitical priests received tithes from their brothers; all of them were descendants of Abraham.</p>	<p>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은 소득의 십의 일조를 성전으로 가져오라는 법으로 제정 하셨습니다.</p> <p>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p> <p>그들의 소득의 십일조를 바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추수할때 그 소득의 십일조를 주님께 바쳐라고 했습니다.</p> <p>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형제들로 부터 십일조를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p>
<p><i>But he whose descent is not counted from them (7:6)</i></p>	<p>7:6 레 위 족 보 에 들 지 아 니 한 멜 기 세 텍 은 아 브 라 함 에 게 서 십 분 의 일 을 취 하 고 그 얻 은 자 를 위 하 여 복 을 받 았 나 니</p>
<p>Not a descendant of Abraham. He lived at the same time, so his descent is not counted from them.</p>	<p>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족보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p>
<p><i>received tithes of Abraham, and blessed him that had the promises (7:6).</i></p>	<p>7:6 레 위 족 보 에 들 지 아 니 한 멜 기 세 텍 은 아 브 라 함 에 게 서 십 분 의 일 을 취 하 고 그 (액속을) 얻 은 자 를 위 하 여 복 을 받 았 나 니</p>
<p>Abraham had the promises of God. “Unto thee shall all of the nations of the earth be blessed. From thy seed shall the nations of the earth be blessed.” This promise was to Abraham, and yet, here is Abraham receiving a blessing from this man. “Consider this man,” who is that man? That even Abraham paid tithes to him and he received the blessing from Abraham.</p>	<p>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p> <p>“너로 말미암아 이땅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씨로 통해서 이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 이라”라고 했읍니다.</p> <p>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워졌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이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있습니다. “이사람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치고 또한 아브라함 으로부터 송축을 받은 이사람이 누구인가?</p>
<p><i>For without any argument the less is blessed of the better (7:7).</i></p>	<p>7:7 폐 일 언 하 고 낮 은 자 가 높 은 자 에 게 복 씬 을 받 느 니 라</p>
<p>The blessing is always bestowed from</p>	<p>축복은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p>

<p>the greater to the lesser. We are blessed of God. The fact that Abraham then received the blessings of Melchisedec puts Melchisedec even above their great patriarch Abraham.</p>	<p>배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 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은 그들의 국부인 아브라함 보다 멜기세덱이 더욱 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p>
<p><i>And here men that die receive tithes (7:8);</i></p>	<p>7:8 또 여기는 죽을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p>
<p>The Levitical priests, they died and the order was passed on and on and on in a succession of generations. And here men that die receive tithes,</p>	<p>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제사장직이 각 세대마다 계속해서 이어 받아 온것입니다. 여기서 죽을자들이 십일조를 받았습니다</p>
<p><i>but there he received them, of whom it is witnessed that he lives (7:8).</i></p>	<p>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히7:8하)</p>
<p>"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That is, Melchisedec still lives.</p>	<p>“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 이라”이라고 한것은 멜기세덱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p>
<p><i>And as I may so say, Levi also, who receives tithes, paid tithes in Abraham. For he was yet in the loins of his father, when Melchisedec met him (7:9-10).</i></p>	<p>7:9 또 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수 있으나 7: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p>
<p>So in reality, the priesthood of Melchisedec is so superior to that of Levi that Levi actually, who was, of course, in the loins of Abraham or potentially there in that gene structure that was to be passed on, Levi paid tithes unto Melchisedec.</p>	<p>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은 레위 제사장 직보다 실제로 우위에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다시말하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유전인자가 전해져 앞으로 레위 지파까지 이르게 되므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것은 레위 지파가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p>
<p><i>If therefore perfection were by the Levitical priesthood, (for under it the people received the law,) what further need was there that another priest should rise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and not be called after the order of Aaron?</i></p>	<p>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 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p>

(7:11).	을 세 을 필요 가 있 느 노
<p>So coming to this Psalm 110, “God hath sworn and shall not repent,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If the Levitical priesthood were perfect, if it could bring man into a perfect state, then why wouldn't God have said concerning the Messiah that, “Thou art a priest for ever after the order of Aaron”? It was because the Aaronic priesthood could not bring anything into perfection. Therefore, God reverts to an earlier priesthood and greater priesthood, “Thou are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p>	<p>그래서 시편110:4절에” 여 호 와 는 맹 세 하 고 변 치 아 니 하 시 리 라 이 르 시 기 를 너 는 멜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쫓 아 영 원 한 제 사 장 이 라 하 셧 도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레위 제사장직이 완전했다면 또 완전한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수 있었다면 왜구타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까요? 왜내하면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 직 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입 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기의 제사 장직 그리고 더 큰 제사장직으로 되돌 려 놓은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p>
<p><i>For the priesthood being changed, there is made of necessity a change also of the law. For he of whom these things are spoken pertaineth to another tribe, of which no man gave attendance at the altar (7:12-13).</i></p>	<p>7:12 제 사 직 분 이 변 역 한 즉 율 법 도 받 드 시 변 역 하 리 니</p> <p>7:13 이 것 은 한 사 람 도 제 단 일 을 받 들 지 않 는 지 파 에 속 한 자 를 가 리 켜 말 한 것 이 라</p>
<p>So the fact that the priesthood is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there has to be a change of the law, because under the law you had to be of the tribe of Levi in order to be the priest. When they had returned from Babylonian captivity, there were some men who claimed priesthood, but they could not prove their genealogies, and so they were not allowed in the priesthood. Only those that could bring their genealogies and prove that they were of Levi.</p>	<p>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직으로 변경 하였기 때문에 율법도 받 드 시 변 역 될 것 입 니 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 만이 제사장 제사장직을 말할수 있었기 때문입 니 다.</p> <p>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 장 이 라 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레위지파임을 증 명 할수 가 없 어 서 제사 장 직 말 는 것 을 허 용 치 않 았 습 니 다.</p> <p>그들이 족보를 가져와서 레위 지파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 니 다.</p>
<p>But here is a priest after another order. Therefore, the law has to be changed, because we know he said that Jesus came</p>	<p>여기에 다른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변역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p>

<p>from the tribe of Judah. And nothing in the law is said concerning the priesthood of the tribe of Judah, but it is an exclusive right for the tribe of Levi. For he of whom these things are spoken, Jesus is the one of whom this was spoken,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pertains to another tribe of which no man gave attendance at the altar. They did not serve before the altar of God, those from the tribe of Judah.</p>	<p>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유다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제사장 이 될수 있다는 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 율법에서는 레위지파에서 나온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수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이것들이 발설되었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한것이기 때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어떤 사람도 제단에서 봉사할수 없었고 유대 지파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지 않았읍니다.</p>
<p><i>For it is evident that our Lord sprang out of Judah; of which tribe Moses spake nothing concerning priesthood (7:14).</i></p>	<p>7: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p>
<p>In the book of Hebrews, he has brought out that we have a great high priest, even Jesus Christ, the righteous. The Jew would immediately challenge, “How could Jesus be a great high priest when He comes from the tribe of Judah?” Nothing is said in the law concerning the priesthood from the tribe of Judah. So here he pulls out this 110th Psalm, “For God has sworn and will not repent, ‘Thou art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And so he answers the argument of the Jew, who would declare there is no way Jesus could be a high priest coming from the tribe of Judah. He answers that argument quite thoroughly with his prophetic Psalm 110.</p>	<p>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이신 의로우신 예수그리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즉시로 도전해 옵니다. “예수가 유다지파에서 온자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수 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유다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겠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0을 들고 나옵니다. 110:4 “여호와 는 맹세 하고 변치 아니 하시 리 라 이르 시 기 를 너 는 멜 기 세 텍 의 반 차 를 좇 아 영 원 한 제 사 장 이 라 하 셧 도 다” 그래서 그는 유다지파에서 나온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수 없다고 선언하는 유대인의 논쟁에 답을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말씀인 시편110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답을 합니다</p>
<p><i>And it is yet far more evident: for that after the similitude of Melchisedec there arises another priest (7:15),</i></p>	<p>7: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p>

<p>It is far more evident because the prophecy in Psalm 110, that there has to arise another priest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p>	<p>시편110편의 예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합니다</p>
<p><i>Who is made, not after the law of a carnal commandment, but after the power of an endless life (7:16).</i></p>	<p>7:16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p>
<p>“Thou art a priest forever.” So the law could make nothing perfect. It could only bear witness of a better covenant, established on better promises.</p>	<p>“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합니다. 다만 좋은 언약을 증거하고 좋은 약속을 설립할 따름입니다.</p>
<p><i>For he testified, Thou art a priest for 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For there is then of necessity a disannulling of the commandment going before for the weakness and unprofitable thereof (7:17-18).</i></p>	<p>7:17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7:18 전 옛 계명이 언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p>
<p>The law has been disannulled, commandments disallulled, because of the priesthood being changed.</p>	<p>율법이 취소되고 명령이 과기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p>
<p><i>For the law made nothing perfect, but it brought in a better hope; by which we draw nigh unto God (7:19).</i></p>	<p>7:19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 할 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p>
<p>The Bible says,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in the sight of God" (Romans 3:20).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 law was never intended to make a man righteous. The purpose of the law was to reveal man's sin and his utter sinfulness. It is by the law that I have a knowledge of sin, for God has declared His righteous standard and I realize that I have fallen short of God's righteous standard.</p>	<p>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로마서3:20)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것과 그사람의 궁극적 죄성을 노출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표준을 선언하시매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기에는 짧다는 것을</p>

<p>So, the law revealing my failure, points the finger of guilt at me and the law then condemns me to death and to the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 one who continues not in the whole law that is to do the things that are written therein'" (Galatians3:10). The law makes no one righteous, but it does put us all under the curse, for it reveals to us our sins and it makes us much more guilty, or at least conscious of our guilt. Now, this is the problem in the time of Jesus, was their interpreting of the law. And I think that that is probably a problem that exists all through the history of man, the interpreting of the law.</p>	<p>깨닫게 되는 것입니다.</p> <p>그래서 율법은 나의 실패를 나타내며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를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p> <p>“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라디아 3:10)</p> <p>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며 우리를 저주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왜내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나타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p> <p>지금 예수님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존재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p>
<p>We're having a tremendous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oday as we are trying to interpret the law, the Constitution, the freedom of religion. What did they really mean? The way the liberal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it, is that man has freedom from religion not the freedom of religion. They got the prepositions twisted up. Our Constitution never intended that man should have freedom from religion. It's just that none of us force our religious convictions or beliefs upon each other, but all of us are allowed to practice our religious convictions in freedom.</p>	<p>미국에서도 오늘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헌법의 종교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p> <p>자유주의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종교 자유가 아니라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를 비틀어 꼬아서 놓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원래의 의미가 결코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재정한 것이 아닙니다.</p> <p>종교적 확신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여 변경토록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종교의 확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It is interesting to me that under the pres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teachers can assign reading to our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assignments by which they can study Hinduism,</p>	<p>현재 헌법 해석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가 고교 학생들에게 힌두교나 불교의 서적을 주고 읽을 대목을 할당하여 읽는 중에 어떤 좋은 말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

<p>Buddhism, and it can be presented in a very favorable light to the children. Huntington Beach High School, one of the teachers there assigned a book that espouses Hinduism, required reading for their class. But surely, if one of the teachers should require that they read a book with Christian connotations there would be an outcry of that liberal half-wit society that it was a violation, the ACLU. I'll tell you...maybe I better not. What damage they have done. They are out to destroy the moral principles and fiber of our nation. They actually create situations where they can challenge the law as they did in the Scopes trial. It was all set up by the ACLU.</p>	<p>한팅턴비치 고등학교에서는 한교사가 학생들에게 힌두교책을 교재로 삼고 학생들에게 읽어 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한교사가 기독교에 대한 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오라고 말했다면 ACLU같은 열빠진자유주의 사회에서 위법이라고 고함지르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 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의 도덕원리와 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헌법에 도전하는 상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 자유심의 한계심의 (Scope trial)같은 것은 ACLU에서 설정한 것입니다.</p>
<p>Now in Jesus' day, they were interpreting the law as a physical, material thing rather than seeing it as a spiritual thing, and interpreting it in a literal, physical way. They were becoming very smug and self-righteous because they followed the law to the letter. For instance, Jesus said, "You strain at a gnat and you swallow a camel."</p>	<p>지금 예수님 당시 그들은 율법을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문을 따라 가기 때문에 잘난체하며 독선적이 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채로 삼키는 도다"라고 했습니다.</p>
<p>Now, over in that land there are lots of gnats, pesky little things flying around your eyes all the time, and just bugging you. And as you were out doing your morning jogging, sometimes these little gnats would fly in your mouth. Now, according to the law you can't eat any meat unless it has been killed in a kosher fashion, thoroughly bled. So you'd see these Pharisees out there with their fingers down their throat straining to get rid of that gnat, because they didn't want</p>	<p>그지역에는 항상 하루살이들나 눈주위로 날아 다니는 성가신 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을 괴롭힙니다. 아침에 조깅을 할때에 하루살이가 입안에 날아 들어 왔습니다. 율법에 고기를 피체먹지 말라고 했으니 코셔방법 으로 피를 철저히 빼내지 않고 먹으면 율법을 범함으로 바리세인들은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하루살이를 피체먹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하는 것입니다.</p>

<p>to do anything that would violate the law. So they strained at a gnat.</p>	<p>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살이도 이렇게 걸러내는 것입니다.</p>
<p>The law said, “Thou shalt not bear a burden on the Sabbath day.” What constitutes bearing a burden? So they had to go down the list of the various burdens that a man might bear on the Sabbath day. You have a glass eye? That is carrying something on the Sabbath day, and you’ve got to take it out on the Sabbath day. Go around with one eye. Have false teeth? Sabbath day, you’re carrying a burden. Get rid of the false teeth. Wooden leg? Not on the Sabbath, man.</p>	<p>율법은 말하기를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것들을 나열해봅니다. 만일 유리 안구이면 이것도 짐이 됨으로 안식일에는 빼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의치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짐이 됨으로 그것도 빼 내야 합니다. 목다리가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착용하지 못합니다</p>
<p>So they sought to interpret the law, making it a heavy, physical yoke that no man can bear. But in reality, becoming very self-righteous because I keep the law, whereas, in reality, they were violating the spirit of the law every day. God intended the law as spiritual. Their carnal interpretation was wrong.</p>	<p>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율법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질수 없는 무거운 짐이 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아주 독선적이 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실제로 영적인 법칙을 날마다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셨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해석은 잘못 되었습니다</p>
<p>That is why in the Sermon on the Mount, beginning in the fifth chapter of Matthew, about verse 14 or so, Jesus said, "Unless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re not going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20). And as all of the disciples were aghast, and shocked, "Well, that let's me out, have to be more righteous than those guys," bunch of fisherman. Oh, this was just too heavy to handle. Jesus went on to explain what He meant. For their righteousness was all of works. An outward righteousness in the</p>	<p>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 보훈에서 14절에서 마태복음5:20 “내 가 너 희 의 가 서 기 관 과 바 리 새 인 보 다 더 낫 지 못 하 면 결 단 코 천 국 에 들 어 가 지 못 하 리 라” 이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아연 실색 하고 속을 먹어”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의롭게 된단 말입니까? 나는 빠지겠습니다”라고 말할며 제자인 어부의 무리들이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벅참니다.라고 할때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을 말씀 하시기를 그들의 의는 모두 자기 들 의 행한 행위이다.</p>

<p>keeping of the law, but inwardly they were violating the spirit of the law every day.</p>	<p>밖으로 볼때는 율법을지키는듯하나 내적으로 그들은 날마다 영적인 법을 어기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p>
<p>Jesus said, "You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they've taught you that the law says, 'Thou shalt not kill,' but I say unto you, that if you hate your brother you've violated the law" (Matthew 5:21-22). Hatred from which murder springs. "You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unto you, whosoever looks upon a woman and desires her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in his heart" (Matthew 5:27-28). It's a matter of the heart. It's the matter of the spirit, and that is what Jesus was teaching.</p>	<p>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5: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하는 것은 그것으로 부터 살인이 나오는 것이다 마태5: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며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읍니다</p>
<p>When you look at the law that way, then we are all guilty. Though we may not have physically clubbed our neighbor to death, we've hated him because he never keeps his dog quiet at night. "I could kill him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I'm awakened by that pesky dog." Guilty! The law made nothing perfect, but it did bring a better hope by which we draw nigh unto God.</p>	<p>만일 당신이 율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다 할찌라도 이웃개가 밤마다 짖는데도 조용하게 하지 않는 이웃사람을 미워 했다고 하자 “내가 이성가신 개가 짖는 통에 한밤중에 나를 단잠에서 깨게 하였으니 일어나서 그사람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좋은 소망을 줍니다.</p>
<p><i>And inasmuch as when a man was made a priest he had to take the oath of the priesthood (7:20):</i></p>	<p>:20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없이 된 것이 아니니</p>

<p>Even as the president has to take the oath of office, the governor has to take the oath of office, so the priest has to take the oath of office.</p>	<p>세상의 대통령도 취임식때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주지사도 선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직책을 맡을때 선서하는 것입니다</p>
<p><i>(For those priests were made without an oath of God; but this with an oath by him that said unto him, The Lord sware and will not repent [God took an oath], Thou art a priest for 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By so much was Jesus made the surety of a better testament (7:21-22).</i></p>	<p>7:21 (저희는 맹세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p>
<p>So, we talk about the Old Testament. We talk about the New Testament. Jesus, when He took the emblems of the Passover supper, a part of the old covenant the deliverance out of Egypt, which was a memorial of their deliverance from Egypt. The purpose of the supper was to remind them that their fathers were delivered from the bondage in Egypt by the hand of God. When Jesus took those elements of the Passover, He said, "This cup is a new testament in my blood that is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The old covenant of God to those in Egypt was put the blood of the lamb on the lentils of the doorposts of the house, and when I passed through the land tonight I'll pass over your house--God's old covenant. The sacrificial lamb would cover for the house. God's new covenant, the blood of Jesus Christ will cleanse us from sin, and death has passed over us. We have passed from death into life. "He that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Oh, we'll be changed. We'll have a metamorphosis. This corruption must put on incorruption. This mortal</p>	<p>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신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굽으로 부터 구원받은 구약의 언약의 한부분으로 유월절 만찬때 떡을 취하셨을때 그것은 애굽으로 부터 구원받은 기념이였습니다.</p> <p>이만찬의 목적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된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데 있었읍니다.</p> <p>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26:28)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옛언약은 집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였습니다. 오늘밤 내가 그땅을 지나갈때에 너희 집은 지나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옛언약이였습니다. 희생양의 피가 그집에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죄로 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나 갔읍니다. 우리는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갔읍니다.“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p>

<p>must put on immortality. I'm going to move out of my old tent into my beautiful new mansion, but I'll never die. So Jesus, being made a priest after the order of Melchisedec by the oath of God, has become the surety of a better testament.</p>	<p>히 죽지 아니하리라”오 그때 우리는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우리는 변화 (metamorphosis)될것입니다. 이썩을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입히울 것이며 이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남은 천막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답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된 제사장이 될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음으로 더 좋은 언약임을 확실히 해주시는 것입니다</p>
<p><i>And they truly were many priests (7:23),</i></p>	<p>7: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 이로 되</p>
<p>They would die, and that was their problem. They'd live out their life span and die, and the priesthood would pass on to the next and the next. It was something that was continually changing. There truly were many high priests of the Aaronic order,</p>	<p>그들은 죽습니다 그것이 문제인것입니다. 그들의 수한이 다할때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분이 그 다음사람으로 계속 이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맡은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결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수가 아주 많게 됩니다</p>
<p><i>because they were not allowed to continue by reason of death [they were mortals]: But this man,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has an unchangeable priesthood. W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them to the uttermost that come unto God by him, seeing he ever liveth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7:23-25).</i></p>	<p>7:23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 이로 되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p>
<p>Now, the purpose of the priesthood was that of intercession. The people could not come directly to God.</p>	<p>이제 제사장직의 목적은 중보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 갈수가 없습니다.</p>
<p>In the book of Job, as Job's friends were probing for the possible reasons for his calamities and sufferings, they had come</p>	<p>욥의 경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재난과 고통을 보고 왜 이러한 일있을까라고 그이유를 찾다가 결론을 내리기를</p>

<p>to the conclusion that Job must be a secret sinner. Guilty of horrible acts of sin that he was able to successfully hide. Job attested to his innocence. "I don't know of anything. I haven't done these things that you accuse me of doing. If I've done these things then let me die. I deserve it, but I haven't done these things."</p>	<p>아마 욥이 숨은 죄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p> <p>홍악하게 지은 죄를 성공적으로 잘 숨겼다고 했습니다.</p> <p>욥은 그의 순결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고 만일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죽어 마땅하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적이 없소이다"라고 변박 했던 것입니다.</p>
<p>And his one friend said to him, "Why don't you just get right with God and everything will be okay." In responding to him, Job said, "I look up at the heavens, and I realize the vastness of God. And I realize that I am nothing. How can I plead my case before God when He is so great and I am nothing? Who am I to stand before God to plead my case?" He said, "There is no daysman between us that can put his hand on both of us." God is too vast. He is infinite. I'm finite. The gulf between the infinite and the finite is too great for the finite to reach over.</p>	<p>그친구중의 하나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 될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p>그의 말에 욥은 반응하기를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p> <p>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을 진언한단 말입니까?</p> <p>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우를 알현 하는 내가 누구인가?</p> <p>"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한 분이 없습니다"</p> <p>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며 무한 하십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무한과 유한의 그 계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한한 자가 미치기에는 불가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p>
<p>That is, of course, the basic weakness of all religions. The finite man is trying to reach over this gulf to the infinite God--impossible. That is what separates Christianity from all religions. Christianity is not finite man trying to reaching the infinite God. But it's the infinite God reaching down to the finite</p>	<p>이것이 물론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건널수 없는 계곡을 넘어 미쳐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 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치려고 노력 하는 것이 아닙니다</p>

<p>man.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the infinite God is reaching down to the finite man. Now, that I can accept that as possible, but religions with the finite man trying to reach the infinite God, I can also see the total impossibility of that.</p>	<p>니다. 기독교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궁이 갑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쳐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임을 볼수있습니다.</p>
<p>As one of Job's friends said, "Who by searching can really discover God or know God, find out God to perfection?" The answer is no one can. God is infinite. I have a finite understanding. I have a finite mind. I cannot comprehend or understand the infinite God. Being finite, I cannot reach the infinite God. The gap is too great. There is no mediator between us, one who can lay His hand on us both, no daysman. But to this cry of Job, and the dilemma of Job, comes the statement of Paul, "There is one God (eternal, true, and living),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I Timothy 2:5). He lays His hand on us both. He touches God because He is one with God, but He touches me because He became a man and is in all points tempted like I am.</p>	<p>읍의 친구중 하나가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수있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있단 말인가?"그답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한 사람인 입니다.</p> <p>나의 이해력은 유한하고 나의 마음도 유한 합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 할수도 없고 상상할수 도 없습니다.</p> <p>나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칠수가 없습니다. 그계곡이 너무나 깊습니다.</p> <p>우리들 사이를 연결해줄 중매자가 없습니다. 한손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한손으로는 나의 손을 잡아줄 중매자가 없습니다.</p> <p>읍의 외침과 그가 봉착한 난관에 대한 답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2:5)</p> <p>그리스도는 그의 손을 양편 모두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손은 하나님께 다른 한손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는 모든 유혹을 받은자가 된 것입니다.</p>

The purpose of the priest was to take this sinning man and intercede for him before God. But the priest himself had sins, so before the priest could offer a sacrifice for you, he had to first of all offer the sacrifice for himself. And then having offered the sacrifices for himself, he then, in turn, could offer for you. He would go before God and intercede for you. He was your representative before God, and then as he would come back to you. He would represent God before you. He was the go-between. He was the daysman. He was there mediating between you and God, because the approach to God was impossible for you to come directly to God. Our sins blocked the door, kept us from coming. You go to God with all your sin, you'd be fried man. You can't stand in the holiness and purity of God. You'd just be wiped out. So that daysman, that mediator. So that was the purpose of the priesthood in the Old Testament.

제사장의 목적은 죄인을 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당신을 위해서 먼저가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대표하고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분의 사이에 있으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길을 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은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Jesus, our great High Priest, is able to save them to the uttermost. Now this salvation that we have...now, again, don't mix your prepositions. It is not saved *from* the uttermost. It isn't here declaring that God can reach down to the lowest level of human existence and take a man from that state of a derelict and raise him to a high level of a redeemed preacher. Now, God can do that, and other text confirms that, but that is not what this text is affirming. It is not saving *from* the uttermost. It is saving *to* the uttermost. This salvation that you have, it's the most. Nothing greater, nothing finer,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을 당신의 어떤 것 과도 혼합시켜서는 안됩니다. 이구원은 최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가셔서 타락한 자를 올려서 구원받은 설교자의 위치에 올리 는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최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러는 구원을 말하는 것

<p>nothing more glorious than this salvation that we have through Jesus Christ. It is going to take us to the highest limits of glory. It's salvation to the uttermost. The absolute, ultimate experience. This glorious salvation that lifts us into the very presence of God and makes us one with Him.</p>	<p>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최극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구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를 영광의 가장높은 한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극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궁극적 경험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런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앞에 올려 놓으며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p>
<p>Now Christ our great High Priest, because He is our great High Priest, is able to bring us salvation to the uttermost, something the law could never do for you. Something rules and regulations could never do for you. It is something that Jesus does do for us because He is our great High Priest and He saves me to the uttermost. The salvation is for all. Jesus said, "He who comes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John 6:37). He is able to save all who come unto God by Him. And the way of salvation is coming to God by Jesus Chris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Him. He accomplishes this by ever living to make intercession for us.</p>	<p>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극상의 구원의 위치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 같은것을 지킴으로 결코 그러한 구원을 얻을수 없습니다.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을 통해서는 결코그러한 구원에 이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최극상의 위치에 이르도록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최극상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 하리 라”요한복음6:37”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능력이 있습니다.”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므로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자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이제사장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p>
<p>Christ is there today, at the right hand of God, interceding on my behalf. Presenting me to the Father, interceding, and that is His ministry and His mission. He is not condemning me.</p>	<p>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버지 앞에 나타내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의 하시는 사역이요 그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는 나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p>
<p>Where did we ever get that idea that</p>	<p>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정죄한다는</p>

<p>Jesus was always condemning us? When Jesus was talking to Nicodemus about being born again, Jesus said, "For God sent not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He that believes is not condemned" (John 3:17-18). Notice He didn't say, "He who works hard, he who is faithful in devotions, he who prays an hour every day, he who reads ten chapters of the Bible every day is not condemned," but, "he who believes is not condemned, and he who believes not is already condemned." The law did that.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came into the world and they wouldn't come to the light.</p>	<p>생각을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때에 “3:17 하나님이그아들을세상에보내신것은세상을심판하려하심이아니요저로말미암아세상이구원을받게하려하심이라 3:18저를믿는자는심판을받지아니하는것이요믿지아니하는자는하나님의독생자의이름을믿지아니하므로벌써심판을받은것이니라” 이말씀을보면 “열심히일하면, 헌신하는일에신실하면또하루에기도한시간씩하면, 성경을매일열장씩읽으면이라고말씀하지않으셨다는것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그러나 “저를믿는자는심판을받지아니하는것이요”라고했고 믿지않는자는이미심판을받은것이니라”라고했습니다. 율법은심판을했습니다. 빛이세상에왔을때그들이빛으로오기를싫어한것이저주가되는것입니다</p>
<p>When they brought to Jesus a woman taken in the very act of adultery, and they said, “Our law says we should stone her. What do you say?” Jesus said, “I say whichever one of you is without sin throw the first stone.” Then kneeling He wrote on the ground in the dirt, no doubt the various sins they were guilty of committing, listing them by name and by order of age. And from the oldest to the youngest they began to leave as they saw their name and then some of the things they thought nobody knew written out on the ground for everyone to see. Finally, Jesus stood up, and there was no one left but the woman. He said, “What happened to your accusers?” “I guess I don't have any, Lord.” He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and sin no more" (John 8:3-11).</p>	<p>요한복음8:3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간음중에잡힌여자를 끌고와서가운데세우고 8:4 예수께말하되 `선생이여, 이여자가간음하다가현장에서잡혔나이다 8:5 모세는율법에이러한여자를돌로치라명하였거니와선생은어떻게말하겠나이까? 8:6 저희가이렇게말함은고소할조건을얻고자하여예수를시험함이러라예수께서몸을굽히사손가락으로땅에쓰시니 8:7 저희가묻기를마지아니하는지라이에일어나가라사대 `너희중에죄없는자가먼저돌로치라!’ 하시고 8:8 다시몸을굽히사손가락으로땅에쓰시니</p>

	<p>8: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p> <p>8:10 예수께서 일어나 사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p> <p>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한복음 8:3-11)</p>
<p>Why is it we always think of Jesus condemning us? He didn't come to condemn. He came to save. Paul said, "Who is he that condemneth?" For so many years of my life I thought it was Jesus. But Paul answers, "It is Christ who died, in fact, is risen again, and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making intercession for you." He's not condemning you; He is interceding for you.</p>	<p>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저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이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p> <p>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랜세월동안 나는 나를 심판하는 자가 예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누가 정죄 하 리 요 죽 으 실 뿐 아 니 라 다 시 살 아 나 신 이 는 그 리 스 도 예 수 시 니 그 는 하 나 님 우 편 에 계 신 자 요 우 리 를 위 하 여 간 구 하 시 는 자 시 니 라” (로마서8:34)</p>
<p>What would you think if your attorney went to the court and said, "Now, judge, this guy is a rat. He deserves to go to jail." You'd say, "Man, what did I pay you five thousand bucks for? My wife could have told the judge that. You don't need to." No, you want your attorney to put your case in the best light. You want him to exonerate you before the court. You want him to represent you. You would sue him for malpractice if he didn't properly...he may have properly represented you, but he didn't represent you like you wanted to be represented.</p>	<p>당신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하기를 “재판장이여 이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여보시요 내가 당신에게 오천불을 왜 주었습니까? 내 아내가 재판장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것입니다 당신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소.</p> <p>변호사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당신의 가장 좋은 점만 말하여 당신이 정죄를 면하게 하려고 할것입니다.</p> <p>죄가 있다면 용서받게 해줄것입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당신을 잘 대변해줄것을 원할것입니다.</p>

	<p>만일 그변호사가 당신의 뜻대로 변호하지 못했다면 아마 당신은 그변호사를 고소 할것입니다.</p>
<p>Now Jesus, not only a high priest, He's my intercessor. And He is able to save me to the uttermost because He ever lives, a priest forever. He ever lives to make intercession. So He acts there in the priestly capacity of interceding or of mediating between God and man, but He is there as my mediator representing me before God.</p>	<p>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뿐 아니라 그는 나의 중보자이십니다.</p> <p>그는 영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므로 나를 극상의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나의 중보자가 될것입니다.</p> <p>예수님은 하늘에서 위를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나사이를 중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표하여 중재하시고 계십니다.</p>
<p><i>For such an high priest becomes us, who is holy, he is harmless, he is undefiled, and he is separate from sinners, and made higher than the heavens [what a glorious High Priest I have]; who needs not daily, as those high priests [from Levi], to offer up sacrifices, first for his own sins, and then for the people's: for this he did once, when he offered up himself. For the law maketh men high priests which have weaknesses; but the word of the oath, [God has sworn and shall not repent] which was since the law [it came some six hundred years after the law; the time of David], makes the Son, who is consecrated forevermore [a priest forever] (7:26-28).</i></p>	<p>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기록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p> <p>7:27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니라</p> <p>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7:26-28)</p>
<p>Chapter 8</p>	<p>8 장</p>
<p><i>Now of the things which we have spoken this is the essence: We have such a high priest, who is set on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the Majesty in heavens; he is a minister of the sanctuary, and of the true tabernacle, which the Lord pitched, and not man. For every high priest is</i></p>	<p>8:1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우편에 앉으셨으니</p> <p>8:2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p>

<p><i>ordained to offer gifts and sacrifices: wherefore it is of necessity that this man have somewhat also to offer [that is the ministry of the priest to offer the gifts and the sacrifices]. For if he were on earth, he should not be a priest, seeing that there are priests that offer the gifts according to the law: Who serve unto the example and the shadow of heavenly things, as Moses was admonished of God when he was about to make the tabernacle: See, said the Lord, that you make all things according to the pattern that was shown you on the mount (8:1-5).</i></p>	<p>이 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p> <p>8:3 대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p> <p>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p> <p>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p>
<p>The reason why there had to be such complete carefulness in the making of the tabernacle, that he makes it exactly according to the plan that God gave to Moses on the mount, is that the tabernacle is a model of heaven. You want to know what heaven is like? Do you want to know what it looks like and all? then study the tabernacle. The Holy of Holies is a model of the throne of God in heaven. The cherubim there in the tabernacle overshadowing the mercy seat. And so it is a model of the heaven.</p>	<p>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p> <p>당신이 하늘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까?</p> <p>당신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장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p> <p>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시온좌를 덮고 있는 그룹천사가 있습니다.</p>
<p>Jesus didn't enter into the earthly temple that had been built by Herod the Great. He didn't enter into the Holy of Holies of the earthly temple, but He entered into the heaven, of which the earthly temple</p>	<p>예수님은 헤롯이 건설한 땅에 있는 성전에는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p> <p>그는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p>

was a model. The earthly temple is not the real McCoy. It is just a model of what is real. So Jesus didn't enter into the model, He entered into the real thing. The earthly temple is only a shadow or a model of that which is in heaven. Our great High Priest entered directly into the heavens, of which the earthly tabernacle was only a model, and there He is representing me before God in heaven, not before a model of that whole thing in the Holy of Holies in the temple here on the earth. These things were to serve as an example and a shadow of the heavenly things.

에 들어 가셨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원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원래성전의 모형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땅에있는 모형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참된 원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자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땅에있는 회막은 그것의 모형일 따름입니다.

그기서 예수님께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대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있는 하늘의 모형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표본으로써 그림자일 따름입니다.

That is why, though oftentimes we get bogged down in Leviticus, if we understand as we are reading in Exodus and Leviticus, we are reading about the temple and the dimensions and the things that were in it. And you go into Leviticus and read about the offerings, then you'll understand more about heaven and the heavenly things. And just to read it as a part of an old dead system that can destroy you. It's like Latin language. In my Latin book in high school someone had written, "Latin is a language dead, as dead as dead can be. First it killed the Romans and now it is killing me." The earthly system was now being abrogated, passing away, because the real has come. The earthly was only pointing forward to

많은 경우에 레우기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성전의 치수와 그속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읽을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것을 읽어보면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옛죽은 제도에 대해서만 읽는다면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마치 죽은 언어인 라틴어와 같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배운 라틴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록하기를 "라틴어는 아주 죽은 언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언어는 "먼저 로마를 죽였고 이제 나를 죽인다" 라고고 했습니다.

이땅의 제도는 이제 폐기 되였고 지나 갔습니다. 왜냐하면 참된것이 왔기 때문

<p>when the real should come. Once the real had arrived, no longer necessary for the model, that can be set aside. Now the reality is here.</p>	<p>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참된것이 왔을때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것이 왔을때는 모형이 더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쳐 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참된것이 왔기 때문입니다.</p>
<p><i>But now hath he obtained a more excellent ministry, by how much also he is the mediator of a better covenant, which was established upon better promises (8:6).</i></p>	<p>히브리 8:6 그 러 나 이 제 그 가 더 아 름 다 운 직 분 을 얻 으 셧 으 니 이 는 더 좋 은 약 속 으 로 세 우 신 더 좋 은 언 약 의 중 보 시 라</p>
<p>Now as you go back in Exodus chapter 19, and you read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the nation of Israel, in the giving of the law, the establishing of the priesthood. This covenant that God made with Israel was predicated upon the people's faithfulness and the people's obedience. Verse 5 of chapter 19, "Now therefore," God said, "if you will obey my voice indeed..." "If," conditional, the covenant just isn't a straight out, flat covenant, unilateral. It is a conditional covenant. "If you will obey my voice indeed and keep my covenant, then ye shall be a peculiar treasure unto Me above all the people. For all the earth is mine, and ye shall be un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which thou shalt speak," God said to Moses,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so Moses came down and called for the elders and all and told them of the people, and the people said, 'All that the Lord hath spoken we will do.' And so Moses returned the words of the people of the Lord" (Exodus 19:5-8). Moses went back to the Lord and said, "Hey, they said they will do everything You say." They said that, but they didn't. But</p>	<p>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 가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제사장 제도를 설립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신실함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출애굽기19:5" 세 계 가 다 내 게 속 하 였 나 니 너 희 가 내 말 을 잘 듣 고 내 언 약 을 지 키 면 너 희 는 열 국 중 에 서 내 소 유 가 되 겠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말을 잘듣고" 여기서 "만일"이란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이언약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부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말을 잘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주에서 내소유가 되겠고19:6 너 희 가 내 게 대 하 여 제 사 장 나 라 가 되 며 거 룩 한 백 성 이 되 리 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 는 이 말 을 이 스 라 엘 자 손 에 게 고 할 지 니"</p>

you see, the covenant was “if” you will obey my commands, “if,” but they did not. And therefore, the first covenant was broken, not by God but by man, because it was predicated upon man’s obedience, man’s faithfulness. But man was not obedient or faithful.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이말씀을 백성들에 전했습니다. 그럴때에 백성들이 19:7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앞에 진술하니 19: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 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대로 청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치 않았읍니다. 보다시피 그 언약은 “만일 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이란 “만일”이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언약을 어긴자가 하나님이라 아니라 사람이였읍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사람의 순종과 신실함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종치도 않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Now Christ has been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which is a better covenant, because it is established on better promises. Why? Because the new covenant is not predicated upon my faithfulness. The new covenant is predicated upon God’s faithfulness. The new covenant is not predicated upon my work. The new covenant is predicated upon God's work. And because the new covenant is predicated upon the faithfulness and the work of God, it shall stand. It’s good. I can enjoy it and be blessed by it, because it isn’t conditioned upon me. It is conditioned upon God and His faithfulness. So, the new covenant is a better covenant. The New Testament superior to the Old Testament, or the

이제 그리스도는 새언약의 중보자 이십니다. 이것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약속위에 설립 되었기 때문 입니다. 왜냐하면 새언약은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새언약은 나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하시는 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언약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 하며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언약은 나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좋은 언약인 것입

<p>new covenant superior to the Old Testament, because it is based upon better promises of the work that God has wrought through Jesus Christ, that finished work. Once and for all, offering the sacrifice, and now my just believing in Him. And that is the condition, my believing in Him.</p>	<p>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월등 합니다. 혹은 새 언약은 옛언약보다 더욱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나는 그를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조건뿐인 것입니다.</p>
<p>As I believe in Him, He then takes over and begins to work in my life, conforming me into His image. It is not a license to just go out and live a careless, reckless life, just sinning whenever I feel like it. In this new covenant, God begins a work in me. And continues that work in me, of conforming me into that image of Jesus Christ, and actually helping me to be what I could never be by the law. To live a better life that I could ever live, because now I'm living the life of the Spirit, and it is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conforming me into the image of Christ. You see, laws are only for the lawless. If you live by the right principles, if you're living like Jesus, you don't need laws. You don't need someone telling you what you should or shouldn't do. You do it, because it's now written in my heart and it's something that comes from my heart. It's not an outward yoke that is put upon me, but this new covenant that God has established, not in the tables of stone, but in the fleshly tablets of my heart. So we'll get to that in a minute. We're jumping ahead.</p>	<p>내가 예수를 믿을때에 주님께서 나의 생활을 맡으시고 내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나가서 조심없이 함부로 내가 기분 날때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허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새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속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속에서 내가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계속 역사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결코 성취할수 없는 것을 실제로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 산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나는 성령의 생명으로 살고있기 때문 입니다.이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 만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와 같이 산다면 당신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사람이 이러일을 해야 한다 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명에나 나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운신 새 언약은 돌비에 기</p>

	<p>록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의 심비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곧그대목으로 들어 갈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p>
<p><i>If the first covenant had been faultless [had it been perfect], then there would be no reason sought to have a second covenant (8:7).</i></p>	<p>8:7 저 첫 언약이 무흠 하였더라면 들찌것을 요구 할 일이 없었으려니와</p>
<p>If the first covenant could bring man into a righteous state before God, then you wouldn't need another covenant. But it could not, and that's why you needed a New Testament.</p>	<p>만일 첫언약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수 있었다면 다른 언약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새언약이 필요 했던 것입니다.</p>
<p><i>For finding fault with them, he said, Behold, the days come, saith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 that I made with their fathers in the day that I took them by the hand to lead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because they continued not [if you keep my commandments] in my covenant (8:8-9),</i></p>	<p>8:8 저 회를 허물 하여 일렸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8:9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p>
<p>It's not going to be like that one predicated upon my obedience.</p>	<p>나의 순종에 의존되는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p>
<p><i>and I regarded them not, saith the Lord (8:9).</i></p>	<p>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히8:9)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p>
<p>They broke the covenant, so I did not keep the covenant, because they broke it.</p>	<p>그들은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나의 언약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p>
<p><i>For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saith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mind, and write them i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o them a God, and they</i></p>	<p>8: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p>

<p><i>shall be to me a people</i> (8:10):</p>	<p>는 저 회 에 게 하 나 님 이 되 고 저 회 는 내 게 백 성 이 되 리 라</p>
<p>You see, it's God's work now. He's going to put His law in my mind and He's going to write it in my hear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God is going to express His will in my life, as I seek Him and as I submit my life to Him, God expresses His will for my life by putting the desire in my heart to do that which He wants done. He puts it into my mind to do something.</p>	<p>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나의 생각에 두시고 나의 마음속에 그법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의 생활에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에게 나의 생활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의 생활에서 나타내시는데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십니다.</p>
<p>I was driving north to Ventura, driving up the freeway through Hollywood. Came to Sunset Boulevard, and I thought, "Beautiful day. I don't have to be in Santa Barbara at any particular time. Why not go the Pacific Coast Highway, slower, but much more beautiful. Just flip the top down and I'll cruise up through Malibu around Point Magu."</p>	<p>내가 북쪽 벤추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헐리웃을 통해서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셋 대로에 와서 나는 생각하기를 "오늘 날씨도 좋고 산타 바바라에 어떤 특정한 약속도 없으니 해안가로 달리는 도로로 천천히 운전을 즐기기로 하고 차 덮개를 열어 재치고 <u>마구지점</u>에서 <u>말리부</u> 를 거쳐서 운전하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p>
<p>So I wound all the way down Sunset Boulevard to Pacific Coast Highway. And as I turned on Pacific Coast Highway there was a young couple there hitchhiking, so I picked them up because I was by myself. I had a chance to witness to them all the way to Ventura, where we pulled off the road and they accepted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p>	<p>그래서 산셀대로를 거쳐서 해안고속도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두 젊은 부부가 서서 차를 태워주기를 위하여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라서 그들을 태우고 운전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벤추라 갈때까지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길가에다 차를 세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p>
<p>I went on to Santa Barbara. When I got to Santa Barbara I got a phone call, "Chuck, you've got to come to Santa Ana right away." So I jumped in my car and came right back to Santa Ana. But who put it in my mind, "Why not go by the beach?"</p>	<p>나는 산타 바바라 까지 갔는데 그갔을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척 지금 즉시 산타아나 집으로 돌아와야 겠소 그래서 나는 즉시 차를 타고 산타아나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생각속에 "해안 도로 로 통해서 가볼까?" 라는 생각을 넣어주 었을까?</p>

<p>Now that would be a natural thing for me to think, because I love the beach. But God said, “I will write my law in their mind.” It was just a flash in my mind, why not go the coast route? Enjoy a beautiful day, take a leisure drive. Who put that in my mind? The Lord wrote His law in my mind, because He knew a young couple from Montana were desperate and needed God. I’ll write my law in their hearts.</p>	<p>그것은 나에게 아주 자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닷가를 좋아 하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하 셴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번개같이 날씨 도 좋은데 해 안가로 즐기며 천천히 운 전을 해볼가 라는 생각을 누가 내마음 속에 넣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그생각을 내마음에 두셨 습니 다. 왜냐하면 몬타나에서 온 두부부가 절 망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 다. 내가 나의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기록하 리라</p>
<p>You see, I thought, “I love the beach and I love driving up by Malibu, and I love that whole drive up by Zuma Beach and the whole thing. Why not?” God put it in my heart. I thought, “Wow, this is…” and I love to so that I did it, because that’s what I wanted and love to do. I wasn’t thinking, “Oh, I’ve got to go by Malibu and Zuma..ugh.” No! It was the desire of my heart. That’s where God wrote His law. And as I turned and wound down Sunset Boulevard, God was saying, “Good boy!” Oh, He has made it so easy writing His law right on the fleshly tablets, right in our minds. Not on a table of stone, saying, “Thou shalt…thou shalt not.” Now it is, “Oh boy, I’d like to do that. Hey, that would be great.” And then all of a sudden I discover that is exactly what He wanted, that is what He had in mind. I’m following the plan of God. Oh, but it’s so much fun. Surely if it’s God’s plan it has to be miserable. I have to be struggling under this heavy cross and just trying my best to rise up under the agony and pain. No way! Jesus said, “My yoke is easy my burden is light.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I’ll write my law in your mind and on the fleshly tablets of your heart.” That</p>	<p>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해변을 좋아하여 말리부쪽으로 운전하며 주마해변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p> <p>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두셨습니다.</p> <p>“야 이렇게 운전하는게 나에게는 즐거 운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오 내가 말리부 그리고 <u>주마</u> 해변까지 가야 하느냐? “라고 억지로 가야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 다. 아니 이것은 나의 마 음속에 소원하는 일 이 었습니 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법 을 기록하신 것입니 다. 내가 차를 돌려 산셀대로로 진입했 을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아” 오, 하나 님께 서 그것을 그렇게도 쉽게 그의 법 을 육 비에 기록하셨습니다.나의 생각에 기록 하셨습니다.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 니고 “하라… 하지말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비에 기록하시니 얼마 나 좋은가? 내가 알고 보니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하기를 원하는 일이였 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 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 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하나 님의 계 획이라고 하면 고통스럽다고 생</p>

<p>puts it in my reach.</p>	<p>각합니다. 십자가 를 지고 그고통 가운데서 일어 나려고 최선을 다하며 애쓰야 한다고 생 각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나의 짐은 가볍고 지기 쉬우니라 네 영혼이 쉽 을 얻으리라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도록 하십니다.</p>
<p><i>And they shall not teach every man his neighbor, and every man his brother, saying, Know the Lord: for all shall know m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For I will be merciful to their unrighteousness, and their sins and their iniquities will I remember no more (8:11-12).</i></p>	<p>8:11 또 각 각 자 기 나 라 사 람 과 각 각 자 기 형 제 를 가르쳐 이 르 기 를 주 를 알 라 하 지 아 니 할 것 은 저 희 가 작 은 자 로 부터 큰 자 까 지 다 나 를 앎 이 니 라 8:12 내 가 저 희 불 의 를 긍 흘 히 여 기 고 저 희 죄 를 다 시 기 억 하 지 아 니 하 리 라 하 셧 느 니 라</p>
<p>Now see, this is God, this isn't me. It's not on my faithfulness now. It's on God's work in my heart, God's work in my mind, God's work in my life. I will know Him. He will reveal Himself. He will be merciful to my failures and He will not remember my iniquities anymore.</p>	<p>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 십니다 나의 생활에서 역사하고 계 십니다. 그가 나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알게 됩니다. 그는 실수하는 나를 긍 흘이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패역한 죄 를 기억도 아니 하십니다</p>
<p><i>In that he saith, A new covenant, he made the first old. Now that which decays and waxes old is ready to vanish away (8:13).</i></p>	<p>8:13 새 언 약 이 라 말 씀 하 셧 으 매 첫 것 은 낡 아 지 게 하 신 것 이 니 낡 아 지 고 쇠 하 는 것 은 없 어 저 가 는 것 이 니 라</p>
<p>And the old covenant soon vanished. Right after this, the priesthood was over, 70 A.D., the end of the old covenant. And even those Jews today who are orthodox, or claim to be orthodox, are not obedient to the old covenant, because there is no priest. There is no high priest. There is no offering for their sins. They are not keeping covenant with God, no matter how religiously they may watch their diets or keep the Sabbath or offer their</p>	<p>옛언약은 곧 없어지게 됩니다. 그이후에는 제사장 제도가 끝이 났읍니다. 주후 70년경에 옛언약이 끝났읍니다. 심지어 정통파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오늘날 옛언약에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음식을 조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통곡의 벽이나 다윗의</p>

<p>prayers at the Western Wall or at the tomb of David or at the tomb of Rachel or at the tomb of Abraham. The old decayed, passed away with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is was written just six years before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So his declaration, "Now that which decays and waxes old is ready to vanish away," was fulfilled within six years. It vanished away.</p>	<p>무덤이나 라헬의 무덤이나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올릴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무너지고 주후 70년경의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파괴전 6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가 선언하신 것을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말씀이 6년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p>
<p>But ours is an everlasting covenant, this new covenant that God has. A covenant established upon better promises, upon a high priest who does not die, does not change, who does not have to offer sacrifices for His own sins before He offers for me. But once and for all offered the sacrifice before God, by which I am saved to the uttermost as I come to God by Him.</p>	<p>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언약은 더좋은 약속위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새언약은 죽지도 않는 대제사장위에서 그리고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드리기전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분위에 설립된 것입니다. 그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내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때에 그분의 하신일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p>
<p>Shall we pray.</p>	<p>기도하겠습니다</p>
<p>Father, we thank you for our great High Priest, Jesus Christ. Who has passed into heaven for us, not into the earthly tabernacle, but, Lord, right there before Your throne, right there on your right hand. And how grateful we are, Father, that You have given to us such a great High Priest who loves us and who has washed us and cleansed us from our unrighteousness and who has changed our hearts and who has changed our minds and who has changed our nature. Through whom we have been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into a spiritual life. Thank You, Father, for the walk and the</p>	<p>아버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대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는 땅의 장막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풍성한 대제사장을 주신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의한 대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해주시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기질을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함을 얻고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p>

<p>life in the Spirit that we experienc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p>	<p>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안에서 생활하고 걸어갈수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 합니다. 아멘</p>
<p>Jesus said,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The purpose of these Sunday evening studies is to fulfill the third part of that command of Jesus to learn of Him. The reason why He said, “Learn of Me,” is that He knows that the more you know Him, the more you will love Him. Because the more you will realize how much He loves you and all that He has done for you. So we encourage you to continue your reading faithfully. Next week the ninth and the tenth chapters as we continue through the Bible learning about Jesus Christ. For He declared Himself that the volume of the book was written about Him. “Lo, I have come as it is written of Me in the volume of the book to do Thy will, O Lord.” And so coming and learning of Him we grow in grace and in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p>	<p>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너에게 메운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주일 저녁에 와서 성경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의 세째부분이것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당신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를 권장 합니다. 다음주에는 9장과 10장을 공부하겠는데 예수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이책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 시편 40:7 “그 때 에 내 가 말 하 기 를 내 가 왔 나 이 다 나 를 가 리 켜 기 록 한 것 이 두 루 마 리 책 에 있 나 이 다” 그래서 와서 그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게 될것입니다.</p>
<p>And so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His hand upon your life and watch over you and strengthen you and guide you this week. As He lays upon your heart His desires and His plans, as He plants in your mind His will and His purpose. And may you just have a beautiful week walking in the Lord, obedient unto Him,</p>	<p>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손이 항상 당신의 생활에 임하여 당신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며 이번주에도 길을 인도해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의 뜻과 그의 목적을 당신의 마음속에</p>

doing His will. In Jesus' name.

심어주실때에 그의 소원과 계획이
당신의 마음에 소원으로 새겨 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번주에도 주님 안에서 행하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간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